



일본 핀테크 투자, 2020년까지 연평균 45.4% 증가 전망

박정희 선임연구원

일본의 핀테크 관련 IT 투자규모는 2017년 110억 엔에서 2020년 338억 엔으로 연평균 45.4% 증가할 것으로 보임. 2017년 초 개정 「은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핀테크를 통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금융기관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한 수익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최근 보험권에서도 보험금 지급 평가 등의 업무에 AI를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 5월을 목표로 텔레매틱스(운전행동연동형) 보험 개발을 본격화할 방침임. 이에 일본 금융당국에서도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등을 지원하고 있음.

■ IDC Japan¹⁾에 따르면, 일본의 핀테크 관련 IT 투자규모는 2017년 110억 엔에서 2020년 338억 엔으로 연평균 45.4% 성장할 전망이다.²⁾

- 금융기관별 투자규모는 은행이 60억 엔에서 170억 엔, 보험회사가 40억 엔에서 120억 엔, 증권사 및 기타 기관이 10억 엔에서 50억 엔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는 금융기관은 증가하는 추세임.³⁾
 - 또한 일본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2020년 초반 윈도우7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18~2019년부터는 많은 금융기관의 PC 업데이트가 동반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측함.
- 특히, 비트코인 보안 시스템인 블록체인 및 트랜잭션 렌딩(거래내역에 따른 대출서비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 IT전문 조사회사로 국내외 정보기술 및 통신사업을 비롯한 금융기관, 정부·공공기관 등의 시장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사보고서를 발간함.

2) IDC Japan(2017. 2), “FinTech活用に向けたIT支出が急拡大”에서 핀테크 활용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개인자산관리’, ‘금융 정보·투자 지원’, ‘텔레매틱스 보험 등’, ‘회계·경영 정보’, ‘소셜 렌딩(융자), ·트랜잭션 렌딩(대출서비스)·클라우드 펀딩’, ‘결제’, ‘암호통화(Cryptocurrency)’, ‘블록체인’ 등 8개로 정의함.

3) 미즈비시도쿄UFJ, 미쓰이스미토모, 미즈호 등 일본의 대형은행들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고정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다이이치생명(第一生命)보험의 경우 2월 가상화폐거래소인 ‘비트 플레이어’에 2억 엔을 출자하기로 발표함.

■ 일본 금융기관은 핀테크 기술을 통해 저렴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IT를 활용한 수익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은행의 경우 각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옴니채널화(omni-channel)’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서비스 강화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로봇의 활용도 모색 중임.
- 보험회사의 경우 콜센터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보험금 지급 평가 등의 업무 지원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언더라이팅 시스템으로 보험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함.⁵⁾
 -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건강증진형⁶⁾ 보험상품의 검증이 시작되었으며, 보험 회사 이외의 금융기관에서도 ATM 등의 운용효율화를 목적으로 IoT 활용을 고려하고 있음.
- 증권회사의 경우 차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와 로봇 자문 등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런 추세는 일본의 대형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 금융기관 및 인터넷 전문은행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⁷⁾

■ 특히, 2017년 초 개정된 「은행법」 시행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보험의 경우 ‘텔레매틱스(운전행동연동형) 보험’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 2016년 5월 일본금융청과 금융심의회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17년 만에 「은행법」을 개정하였으며, 2017년 초 개정 「은행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핀테크가 활성화될 것임.
 - 일본 대형은행들은 중소 전자상거래업체 및 중소 IT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전자상거래와 IT기술을 접목하여 결제서비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보험권에서는 텔레매틱스 보험을 2017년 5월 출시 목표로 개발 중임.
 - 이 보험은 자동차센서 장착 및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는 운전습관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함.

■ 일본 금융당국은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핀테크 활성화 지원⁸⁾을 지속한다는 방침임.

kiri

-
- 4)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임.
 - 5) 올해 초 후쿠쿠생명은 보험금 지급 심사에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투입해 의사의 진단서를 바탕으로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일부 대체하고 있으며, 왓슨이 자동차사고 보고서를 읽고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6)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생활을 돕는 보험상품을 말하며, 일본 생명보험 시장에 대세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음.
 - 7) 최근 ‘SBI 리플 아시아’의 상용을 전제한 컨소시엄에 일본의 모든 인터넷 전문은행과 30여개 지방은행이 참여한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 8) 일본금융청(2017. 3), “일본과 영국의 금융규제 당국이 혁신적인 FinTech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서한” 발표.